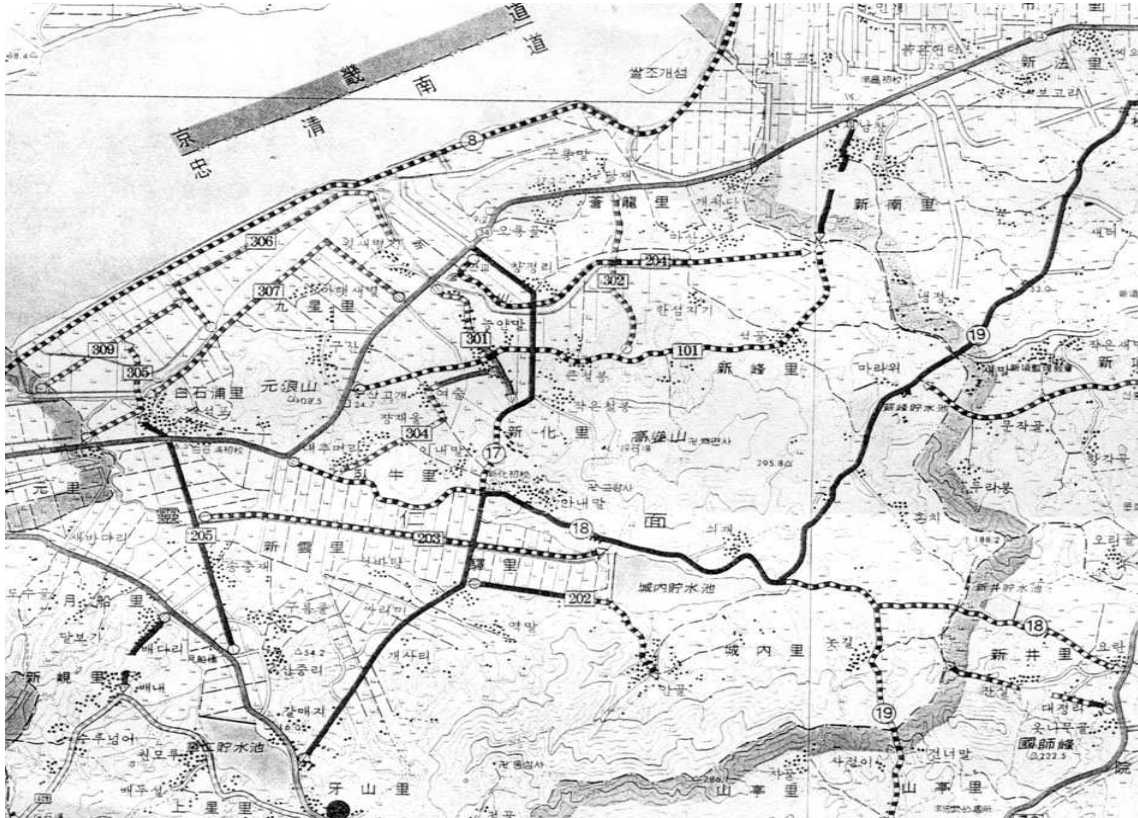


창룡리·倉龍里

창룡리는 1리 창정리, 2리는 오룡골, 구룡말, 당개, 3리는 용골(개척단), 4리는 매땅이(마산이)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가구는 280가구이며 총인구는 859명이다. 본래 아산군이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창정리, 용동리, 용서리를 병합하여 창룡이라 하여 영인면에 편입되었다.

<창룡리 위치도>



창정리, 오룡골, 구룡말, 당개, 용골, 매땅이

창룡1리(창정리) 마을은 효종때 문장동명 정두경이 정자를 짓고 시를 읊으며 놀았다하여 창정리 라고한다. 창룡2리(당개, 오룡골)마을 오룡골, 구룡말(용서리), 당개(용동리)등 3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룡3리(용골) 마을은 용골 또는 개척단 이라고도 하며 1956년 도에 난민 250여세대가 이곳에 정착하면서 마을이 구성되었다. 창룡4리(매땅이) 매땅이 또는 마산이라고도 하며 1926년부터 1956년 까지 박하신 이석원 2세대가 당개로 편입되어 생활 하던중 1956년도에 창룡리 개척단 소속 난민 50세대가 들어와 원주민 13세대와 통합하여 1970년도에 신봉4구로 분구 되었다가 1970년 아산만 수로공사로 인하여 6세대가 철거되어 거주하던 중 1994년 7월에 창룡4구로 행정구역이 개편 되었다.

<조사당시 창룡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면소재지에서 북쪽으로 8 ~ 9km지점에 위치하여 국도 34호를 끼고 동서로 길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하여 동쪽으로는 둔포면 신남리와 접해있고, 북쪽으로는 아산호와 맞닿아 평택이 건너다 보인다.

2) 현황

창용리의 인구분포현황은 용골마을이 337명으로 제일 많고 창정리마을이 133명으로 인구분포가 적게 나타났다. 생업에서는 당개마을이 82%이고, 창정리 70%, 매땅이 68%, 용골이 66%이다. 농경지현황에서는 용골마을이 109ha로 제일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다.

－ 인구분포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창정리	133명	65명	68명
당개	250명	125명	125명
용골	337명	165명	172명
매땅이	139명	67명	72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창정리	100%	70%	30%
당개	100%	82%	18%

용골	100%	66%	34%
매땅이	100%	68%	32%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창정리	51ha	39ha	12ha
당개	100ha	87ha	12ha
용골	109ha	88ha	21ha
매땅이	47ha	25ha	22ha

- 농기계보유현황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창정리	21대	8대	3대	2대	3대	8대
당개	40대	10대	5대	4대		36대
용골	32대	13대		5대	10대	26대
매땅이	20대	4대			2대	10대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 프	사물놀이악기
창정리	1채	1개	8개
당개	1채	1개	8개
용골	1채	1개	8개
매땅이	1채	1개	8개

- 연령분포

구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이상
창정리	3	13	17	24	31	23	8	12	2	
당개	10	12	15	20	30	45	68	40	10	
용골	26	30	56	31	38	47	47	30	15	
매땅이	12	16	15	10	15	15	30	21	5	

성씨별 분포를 보면 창정리는 김씨, 이씨가 각각 27% 많이 살고 있으며 당개마을은 김씨, 이씨가 각각 22%, 용골마을은 이씨가 10%, 박씨가 9%로 조사되었으며, 매땅이마을은 김씨가 36%로 많이 살고 있다.

- 성씨별 분포

구분	김씨	이씨	송씨	박씨	정씨	오씨	유씨	장씨	기타
----	----	----	----	----	----	----	----	----	----

마을명									
창정리	27%	27%		5%	4%	10%		11%	16%
당개	22%	22%		4%	10%	1%	9%	1%	31%
용골	8%	10%	6%	9%	8%	4%	1%	3%	51%
매땅이	36%	18%		3%	5%	2%	1%	3%	32%

－ 학생분포

구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창정리	4	3	2	5
당개	10	5	6	3
용골	15	10	7	5
매땅이	3	3	4	9

－ 최고령자

창정리 마을은 83세의 최용운 할아버지이시고

당개 마을은 87세의 방동완 할아버지이며

용골 마을은 94세의 김소례 할머니이시다.

매땅리 마을은 87세의 한상희 할아버지, 이창희 할머니이시다.

－ 호당 평균 소득

창정리 마을은 년/800만원

당개 마을은 년/1,000만원

용골 마을은 년/1,400만원

매땅이 마을은 년/1,000만원

3) 자연경관

창용리는 마을앞 아산만 갯벌 60여만평의 간척지가 있으며 전통적인 농촌 마을이다.

4) 마을 변천과정

본래 아산군 이북면의 지역인에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창정리 ,용동리 ,용서리를 병합하여 창룡이라 하여 영인면에 편입됨.

5) 입향

창용1리 : 온양정씨 정두경이 정자를 짓고 살았으나 그 후손은 현재 살고 있지 않다. 특별 한접성촌이 없으며 김해 김씨 6세대, 전주이씨 5세대와 그외에 각성이 거주하고 있다.

창용2리 : 처음부터 아산 이씨가 살았으나 지금은 3집뿐이며 광산 김씨 감찰 김척의 후손이 11대에 걸쳐 세거하나 후손은 2세대 뿐이며, 후에 들어온 순안군 이 세척의 후손 전주이씨가 제일 많이 거주하는 각성마을이다. 김척의 묘는 월출산에 있다.

창용3리 : 용골에는 원래 이씨, 권씨, 송씨 3가구가 살았는데, 1956년에 난민 250세대가 이곳에 들어와 정착한 뒤에 각 씨성을 이루며 살고 있다.

창용4리 : 매땅이에는 1926년경 박하신·이석원 2세대가 살다가 그 후에 광산 김씨가 정착하여 13세대가 살아오던중 1956년 창용리 개척단 소속 난민 50세대가 들어와 살게 되었으며, 현재 총 41가구 중 광산김씨 9세대, 김해김씨 2세대, 전주이씨 3세대등이 살고있다.

6) 지명

구령말(구룡말) : 당개 서쪽에 있는 마을,구령산서쪽이 되며 산제당이 있다.

당 개 : 창정리 북동쪽 끝에 있는 마을 구령산 동쪽이 되는데 뒷산에 산제당이 있고 앞에 큰 개가 있음.

매땅이 : 창정리 동쪽에 있는 마을.

오룡골 : 구령말 남쪽에 있는 마을.

오통(산이랑골) : 지금 신한제분이 있는자리.

한자골 : 면산이 있는 골짜기.

용골(개척단) : 구어산 동쪽에 있는 마을. 1956년 12월에 난민 250여세대로 개척단을 조직하여 이곳에 살게했음.

창정리 : 오통골 남쪽에 있는 마을 효종때 문장 동명 정두경이 이곳에 정자를 짓고 시를 읊으며 놀았다고 함.

마 산 : 석골 서쪽에 있는 마을. 뒷산의 모양이 말이 드러누운 형상과 같다.

구령산 : 당개서쪽 갯가에 있는산. 모양이 구령이와 같이 생기었음.

석 보 : 오통골 서쪽에 있는 못.1928년 한해 대책 으로 만들었으며 아산만 방조제 완공후 경지정리로 폐지되었다.

당 개 : 산제당 앞에 흐르는 개 이개에는 송어가 특산인데 모두 서울로 진상하고 본토 사람 들은 별로 송어를 먹지 못하였다고 한다. 진상용 송어를 기르던 양어장을 토정 이지함 현감 이 폐쇄하여 농지로 전용하여 어민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산제당 : 구령산에 있는 산제당.

제비산 : 당개 서쪽에 있으며 광심리들 나가는 곳의 끝에 작은 산. 그곳에서 집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와조각과 돌확절구가 나온다.

안 산 : 창용 2구에서 1구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 산.

당집별 : 지금의 신한제분이 있는산.

면 산 : 창용 3구의 뒷동산이라고도 하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면산(面山)이라 부르기도한다.

뒷동산 : 당개 마을의 뒷산.

동그락산 : 미래 고개가 있는 산.

7) 전설

영인면 창용리 2구 현재도 당개로 불리우고 있는데 이곳은 조선시대 중기부터 어촌으로 이름난 곳이며 현재에도 어부들이 자손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는 아산만 방조제 축조로 주위에 펼쳐져 있던 갯벌이 수백 정보의 옥답으로 변했으나 지금부터 40여년 전에는 아산만의 명물인 강다리(길이 15cm의 물고기)와 송어가 당개 앞에서 다량잡혀 그 고기를 사러 오는 장사꾼으로 장사진을 이루어 波市를 이루었다. 특히 4월에는 어획량이 많은 시기로서 상인과 외지로부터 구경꾼이 많이 모여들어 광대(줄타기)놀이와 농악등을 주야로 공연하여 돈이 혼하여 흥청거림을 '4월 당개' 라고 한다. 5월로 접어들어서 고기떼가 사라지고 모든 어업자들이 철수하게 되어 흥청거리던 당개는 조용한 촌락으로 되돌아 갔다.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4월은 '4월당개'라 하고, 5월은 쓸쓸한 촌락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5월 땅개'라 한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창용리는 대동계가 리별로 있으며, 부녀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이 마을에서 특별하게 소개 할만한 인물은 조사되지 않았다.

10) 종교단체

세일교회 영인면 창용1리 전도사 유명신 종파 : 장로교

창용구세군 교회 영인면 창용3리 사관 정오정 종파 : 구세군

11) 공장현황

신한제분(주) 대표 김일웅 창용107번지 생산품목 : 제분업 도정

세아섬유 대표 박상인 창용 산213-2번지 생산품목 : 원사

한국원음 대표 김승 창용 27-181 생산품목 : 영상음향기기
성광전자(주) 대표 한용희 창용 287-1 생산품목 : CD플레이어
대건특장(주) 대표 설희경 창용 산27-4 생산품목 : 자동차 부품
태양모터스 대표 조원창 창용 200-5 생산품목 : 차체제조업

12) 마을의 특성

이 마을은 전통적인 농촌마을로 마을 인심도 좋고 자연도 좋은 아름다운 마을로 알려져 있다.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환경보존에 힘쓰고 경로 잔치로 효의 정신을 키우는 마을 가운데 하나 이다.